

66

# 재미있는 겨말 큰말 기행 상

곁에 두고 읽는 곁말

박갑수



역락

## 박갑수

---

서울대 명예교수, 연변대 과기학원 겸직교수

일본 天理大學, 筑波大學, 중국 洛陽外國語大學

초빙교수 역임

국어심의위원, 방송심의위원, 법제처 정책자문위원

한국어 세계화재단 이사

한국어능력시험 자문위원장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역임

국어교육학회·이중언어학회·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문화 국제교류재단 고문

저서 『현대문학의 문체와 표현』

『고전문학의 문체와 표현』

『일반국어의 문체와 표현』

『신문·광고의 문체와 표현』

『한국 방송언어론』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한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

『우리말 우리 문화』

『재미있는 속담과 인생』 외 다수

재미있는 결말 기행 (상)

— 곁에 두고 읽는 결말 —

87 87  
03167

87 87  
03167

# 재미있는 결말 기행 (상)

- 곁에 두고 읽는 결말 -

박 갑 수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역락

## 머리말

오늘날은 각박한 시대다. 긴장이 연속된다.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흐트러진 면도 있어야 하겠고, 허튼 소리도 좀 해야 하겠다. 이에 여기 “재미있는 결말 기행—곁에 두고 읽는 결말”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

“결말”이란 본래 은어(隱語)와 같은 특수한 사회적 방언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은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특히 다른 말로 빗대어 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황석영의 “장길산”에서 강령 광대에게 문화 광대의 소재를 물으니, “문화” 광대를 유음어(類音語) “문어(文魚)”에 빗대어 서해 용왕님을 모시고 있다가, 엿저녁에 낚시에 걸려 사거리 주막집 초장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결말은 이렇게 말소리나 의미의 면에서 관련이 있는 것에 빗대어 예들러 표현하는 여유가 있고, 그것이 말장난이니만큼 재미가 있다. 따라서 각박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은 이에 의지하여 긴장의 끈을 늦추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볼만한 언어 표현이다.

이러한 결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빗대어 표현하는 해학과 풍자의 말이다.
- ② 동음어와 유음어, 및 다의어에 의한 어희(語戲)다.
- ③ 속담·수수께끼·파자와 같은 일정한 형식의 비유적인 지적(知的) 표현이다.
- ④ 재담·육담과 같은 재치 있고 해학적인 표현을 아울러 이른다.

인간생활의 원칙은 협동에 있고, 이는 주로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통달적(通達的) 기능과 환정적(喚情的) 기능으로 나뉜다. 통달적 기능은 지시, 지적하는 보고적 기능이요, 환정적 기능은 감정이나 태도를 환기하는 기능이다. 결말은 이 가운데 환정적 기능을 지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통달적 표현은 아무래도 단조하고 긴장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환정적 표현은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이는 문학, 특히 시(詩)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우리 조상들이 활용한 결말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취했으면 한다.

결말은 흔히 서민들이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히 서민들이 많이 즐기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서민으로부터 왕후장상, 유·무식(有無識)의 구분 없이 누구나가 즐기는 수사기법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일상의 평범한 결말에서 난해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말의 세계가 소개될 것이다. 때로는 쉽게 즐기고, 때로는 궁리를 하며 즐겨야 한다. 그리고 내용도 때로는 야한 육담(肉談)도 제시될 것이고, 지적인 교훈

이나 지식도 접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즐기시기 바란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중간에 본론이 나오고, 에필로그로 대단원을 마치게 되어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첫째, 결말의 정의를 내리고, 둘째 정의에 따른 용례를 제시하였다. 58편의 본론에서는 비유, 동음어, 다의어, 속담, 수수께끼, 파자, 재담, 육담 등 결말의 각종 형식에 따라 용례를 제시하며 향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정리하는 면에서 첫째, 결말의 의미와 용례를 확인하고, 둘째, 결말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바쁜 분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만 보아도 결말의 대강을 이해하고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은 본론까지 천천히 즐기시면 좋겠다. 결말의 용례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즐기실 수 있다. 본론은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다. 보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먼저 펼쳐 보아도 좋다. 각 편은 독립된 것이고, 목차는 글이 쓰인 순서와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새로 배열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수록된 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글+漢字 문화”에 “결말 기행”이라 하여 연재했던 60회분의 원고다. 이는 “월간중앙”과 “문예중앙”에 1979년 3월부터 21회에 걸쳐 “인기 연재 결말의 재미”라는 타이틀을 달고 연재했던 글을 개고한 것과 새로 집필한 원고로 되어 있다.

저자는 본래 결말을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월간중앙”에 결말을 연재하며 “인기 연재”라는 타이틀까지 제목에 얹게 되어 이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되어 오늘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묶게 되었다. 이러한 결말의 정리, 출간은 무엇보다 당시 “월간중앙”의 편집국장이셨던 양태조(梁泰朝) 형을 만난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머리말에 이를 밝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왕년의 애독자 여러분께도 감사한다. 새로운 독자분들께는 우선 결말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고, 각박한 세상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기원한다.

2018년 9월 10일

瑞草書室에서

南川 적음



•머리말	5	
•프롤로그_결말의 여행을 떠나며		11
1. 결말의 의미와 실체	11	
2. 재미있는 결말의 응례	15	
1. 가재 잡으러 가재.		31
2. 개 건너 큰애기 날 오리누나.		41
3. 개 팔아 두 냥 반(兩半)		52
4. 관망은 오려논에 새 볼 터		62
5. 기름 두 되만 기왓골에 바르라.		72
6. 길짐승은 족제비를 사랑하고...		83
7. 낙민루(樂民樓) 아래 백성은 눈물 짓는다.		94
8. 내 분부 거절키는 필연 곡절 있을 터니...		105
9. 내 언제 공경해 달랬소?		116
10. 네 코는 상놈의 코라 이 코에 범치 못한다.		127
11. 네가 무슨 년의 도화(桃花)냐?		137
12. 노름이 고름이요, 풍악이 벼락이라.		147
13.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남원(南原)		158



본서는 '월간중앙'에 "인기연재 결말의 재미"라는 타이틀을 달고 인기리에 발표된 글을 바탕으로 하였다. 물론 이는 정리·개고되었고, 새로운 글을 많이 증보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재미있는 결말을 총정리한, 명실상부한 결말의 결정판이다.

언어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통달적(通達的) 기능과 환정적(喚情的) 기능으로 나뉜다. 통달적 기능은 지시, 지적하는 보고적 기능이요, 환정적 기능은 감정이나 태도를 환기하는 기능이다. 결말은 이 가운데 환정적 기능을 지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통달적 표현은 아무래도 단조하고 긴장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환정적 표현은 긴장을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이는 문학, 특히 시(詩)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우리 조상들이 활용한 결말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취했으면 한다.



ISBN 979-11-6244-306-4  
ISBN 979-11-6244-302-6(전 2권)

정가 20,000원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



Mã sách: 070704147